

데이비드 L. 매튜슨 박사, 신약 신학, 22

회차 , 예수님의 죽음, 1부

© 2024 Dave Mathew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22, 예수님의 죽음, 1부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섹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와 관련된 신약의 지배적인 성경-신학적 주제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약적으로 제안하자면, 신약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속 활동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목적, 그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목적, 구원을 성취하고 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려는 모든 일,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절정과 성취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활동,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구속적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행위의 정점입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의 사역과 그가 정확히 무엇을 성취했는지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저는 다음 몇 세션에서 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는 데 무엇을 성취했는지 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살펴보고 구약에 비추어 그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시작하고 싶지만, 신약의 가르침에 비추어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을 성취하는지에 관해 신약이 강조하는 바,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시 신약이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를 고려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죽음을 다루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모든 곳에 참조가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면에서 신약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중요성을 언급하거나 가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의 죽음의 모든 뉘앙스를 포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언급하는 모든 책과 모든 텍스트의 모든 저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한 모든 윤곽을 탐구할 수 없지만, 다시 한 번, 저는 신약에서 예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명확한 특징과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다른 신학적 주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경적 순서의 관점에서 예수의 죽음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살펴보고 사도행전, 바울 문헌, 다른 신약 본문, 그리고 요한묵시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후자는, 우리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벗어나 후자의 본문을 다룰 때, 우리는 주로 책 자체를 정경적으로 살펴보는 대신, 책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배적인 주제의 관점에서 책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나서 바울의 서신과 나머지 신약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머지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된 소수의 지배적인 주제나 모티프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은 복음서 자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서가 모두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에 이르는 고난에 대한 긴 설명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도 포함됩니다. 부활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모두 예수의 삶의 다른 측면, 특히 마가복음에 할애된 시간과 공간의 양에 비해 상당히 긴 설명으로 끝납니다.

신약성서 본문은 그 짧은 기간을 다루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시련과 고난, 죽음을 중심으로 합니다. 사실, 많은 신약성서 신학자들이 회상하듯이, 복음서는 종종, 특히 마가복음서는 긴 서론이 있는 십자가 처형 이야기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복음서는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절정에 이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작가들, 초기 교회와 초기 기독교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서에는 또한 예수께서 실제로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그에 이르게 되었다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맥락에서,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는 자신이 그리스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다음, 21절에서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결코 그럴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부활의 부분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베드로의 문제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가 메시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후, 예수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과 함께 생각해보니, 베드로는 이것을 끼워맞출 수 있는 범주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본문을 몇 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들은 예수를 예상하고, 그의 복음서 중 일부에서 아주 일찍 그의 고통과 그가 직면하게 될 죽음을 예상합니다. 하지만 또한 복음서들은 모두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의 고통에 대한 긴 설명으로 마무리하는 데 동의하며, 그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복음서들이 예수의 죽음의 중요성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 많은 부분은 아마도 복음서의 문학적 장르 때문일 것입니다. 복음서는 서사적이고, 깊이 파고들지 않거나 분석하지 않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죽음의 중요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나 서사로서 복음서는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할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의 죽음의 정확한 의미를 자세히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복음서는 예수의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가 지상에 온 의도는 결국 십자가에 가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에서 중요한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와 나머지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신 목적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때때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에 대한 많은 힌트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과 21절은 요셉이 그의 아내 마리아가 곧 낳을 아기의 이름을 지을 것을 듣는 흥미로운 진술로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태는 이 시점에서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지 말해주지 않지만, 그것은 서사가 전개되면서야 분명해집니다. 예수가 온 주된 목적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단계에서는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유배로 만든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태가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 여전히 유배 중이라고 가정한다면, 예수는 와서 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사람입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우리는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히 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맥락에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습니다.

50절: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신 후에, 그는 그의 영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51절에서,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이야기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사건은, 비록 그것이 여러 가지를 암시할 수 있지만, 아마도 지금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과 죄의 용서가 더 이상 성전과 그 희생 제도에 묶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죄 사함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접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성취하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전에는 성전에만 국한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본문이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마가복음의 주제 또는 마가복음과 복음서의 지배적인 초상이라고 제안합니다. 그것은 종으로서의 예수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0:45에서 다시 예수는, 내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45에서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사람들을 대신하여 또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의 사람들을 구속하고, 사고, 해방하는 죽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맥락에서 섬기기 위해 오신 고난과 종의 언어가 이사야 53장의 종의 노래와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종은 또한 그의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칩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하인이라고 부르신 것은 아마도 이사야의 하인의 노래, 특히 52장과 특히 53장을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백성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었다는 분명한 증거를 발견합니다. 가장 유명한 두 텍스트는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 복음에서 발견됩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의 아들을 다시 죽음으로 내어주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동기 부여 요인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유월절 축제 직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므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까지 가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관련하여 복음서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또 다른 주제는 예수 자신의 죄 없음과 그의 무죄함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특히 십자가 처형 이야기에서 반복적으로 묘사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의 후반부에 있는 요한의 설명을 읽어보세요.

예수의 죽음과 그의 재판에 대한 요한의 설명에서 예수의 죽음에 대한 비난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됩니다. 하지만 예수는 무죄합니다. 그는 죽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의 무죄함, 십자가로 가는 죽음에서의 그의 죄 없음에 대한 복음서 작가들의 중요한 주제인 듯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들은 예수의 죽음의 신학적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특히 예수가 무엇을 하기 위해 왔는지와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그의 백성을 위한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계획의 절정이라는 중요성과 관련하여 이미 그것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징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제기할 수 있는 또 다른 모티브는 구약과의 연관성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구약의 성취와 관련하여 거듭거듭 묘사됩니다. 우리는 이미 종의 언어를 보았지만, 아마도 구약의 희생, 희생 제도, 희생양 등도 요한의 하나님의 어린 양 언어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궁극적으로 구약의 희생 제도와 죄를 위한 희생의 성취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죽음의 중요성은 예수님이 행한 일, 특히 일부 연설과 설교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3장 18절과 19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앞부분 몇 장에서 베드로가 말하거나 설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언급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3장 18절과 19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곧 그의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죄가 씻겨지거나 없어지게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때가 올 것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구약 예언의 성취와 분명히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구약 예언자나 메시아의 죽음을 예언하는 예언자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사야 52장과 53장에서 다시 하인의 노래를 염두에 두고 있었겠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구약 예언의 성취와 연결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18절에서 연결되고, 19절에서는 죄를 씻어내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회개함으로써 사람들은 선지자들에게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근거로 그들의 죄를 제거하거나 처리하거나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이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그 죽음이 이룬 것을 다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사도행전 5장 30절, 다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29절에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셨는데, 여러분은 그를 나무나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예수를 나무나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이 언급은 예수가 행한 일을 요약한 귀여운 속담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노래와 찬송가, 그런 것들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약성경의 신명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서, 신명기 21장 23절에서 이렇게 읽습니다.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죽고 그 시체가 기둥에 매달려 있으면, 그 시체를 밤새도록 기둥이나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말고, 같은 날에 반드시 묻으십시오.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매달렸다는 이 언어는 NIV에서 기둥에 매달렸다고 번역하지만, 나무에 매달렸다는 이 아이디어는 나중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루는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아마도 예수가 저주받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나무에 매달렸다는 것은 예수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명기 21장의 맥락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는 저주를 스스로 짊어졌다고 묘사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용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무에 매달렸다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저주를 스스로 짊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이상으로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더 발전시킬 것이지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이 진술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나무에 매달린 자의 저주에 대한 암시일 가능성이 큼니다. 사도행전 20장과 28절은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사도행전 자체에서 지적할 수 있는 다른 예가 많이 있지만, 사도행전 20장과 28절, 27절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자신과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신 모든 양 떼를 주의해서 살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의 목자가 되십시오. 이제, 흥미로운데, 여기에는 문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언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자신의 백성을 사셨다는 것을 뜻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언급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뜻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제 자신의 백성을 자신, 즉 교회를 위해 확보하거나 획득하고, 이제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줍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다른 본문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이 초기 교회가 구약의 성취, 죄를 씻어주는 것,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짊어지시고 자신을 위해 사셨다는 것, 자신의 백성인 교회를 자신의 피로 획득하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여주기에 충분한 예를 살펴보았다고 생각합니다.

피는 일종의 환유법인데, 즉, 전체를 가리키는 부분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나머지 신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나머지 신약을 정경적으로 살펴보지 않겠지만, 나머지 신약, 바울 서신, 요한 계시록을 포함한 다른 신약을 몇 가지 주요 주제나 모티프의 맥락에서 언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너무 많아서 모든 것을 종합하고 신약 전체와 그 의미를 추적하려고 하면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여러 구절을 생략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조할 수 있는 모든 주제를 다루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저는 결정적이고 의미 있고 탐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바울의 서신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신약의 다른 곳에서도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 예수의 죽음의 신학적인 중요성이 풀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관련하여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긴 서사와는 대조적으로, 예수의 죽음이 수반한 것과 예수가 성취하기 위해 온 것의 중요성을 풀어내는 진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주제나 모티브는 구약 성경의 성취로서의 예수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보았지만,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그것을 여러 번 봅니다

. 그리고 다시 한 번, 참조가 너무 많아서 모두 살펴보기에는 너무 많으므로, 저는 그 중 몇 가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거듭거듭,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구약 성경의 성취로 여겨지지만, 신약 저자는 항상 그들이 어떤 구약 성경을 성취한다고 생각하는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사야 53장이 그의 백성을 위해,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죽고, 고통받고, 죽는 종의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은 신약 저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구약 성경의 성취로 지적하는 여러 예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명확한 것 중 하나는 사도행전 3장 18절인데, 저자는 예수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15장에서 바울이 부활에 대해 설명한 내용에서도 비슷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부활에 대해 길게 다루었는데,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더 일반적으로, 그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본문을 다른 주제와 관련하여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처음에, 처음 세 구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의미를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너희가 받았고, 너희가 그 위에 섰느니라. 너희가 내가 전한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지 않으면 헛되이 믿으리라.

그리고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그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것은 전통을 받고, 가르치고,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종의 기술적인 언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따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는 성경에 따라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흥미로운 언급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이해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는 것은 성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어떤 성경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상한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마도 이사야 52장과 53장, 종의 노래는 바울이 예수의 죽음이 구약 성경을 성취한다고 생각할 때 염두에 둔 성경 중 일부일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둘러싼 구체적인 세부 사항 중 일부도 성경의 성취로 여겨진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복음서로 돌아가 보면, 다시 말하지만, 저는 바울과 다른 신약 문헌만을 언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때로 저는 예수의 죽음과 관련하여 복음서 본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요한이 구약성경이나 예수의 죽음에 대해 기록한 내용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성경이... 사실, 뒤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증거했고, 그의 증거는 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여러분도 믿게 하기 위해 증거합니다. 사실, 더 뒤로 돌아가서 33절을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에게 와서 그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그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십자가 처형에서 흔히 있었던 일로, 희생자가 더 이상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었고, 그들은 금세 질식사하여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6절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35절에서 이것을 보고 이것을 증거하는 자에 대한 언급이 있는 후에 저자는 이런

일들이 성경이 성취되도록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스가랴서에서 인용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출애굽기 12장 46절을 인용합니다.

그의 뼈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 시점에서 제 목적은 돌아가서 출애굽기 본문을 자세히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돌아가서 출애굽기 12장 46절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12장 46절은 유월절과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기념할 때 사람들에게 주시는 지시에 대한 맥락입니다. 유월절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각주로,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출애굽의 맥락에서 이해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백성을 구속하고 새로운 출애굽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12장 36절, 12절 46절에서 유월절에 대한 지시에서 예수님은 뒤로 돌아가서 43절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유월절 식사의 규정입니다. 외국인은 먹을 수 없습니다. 데려온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수 있지만, 임시 거주자나 고용된 일꾼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먹어야 합니다. 즉, 유월절 양고기는 집 안에서 먹어야 합니다. 고기는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뼈도 부러뜨리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것을 축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은 이 간단한 세부 사항에서 분명히 보입니다.

저자는 아마도 유형적으로 성취감을 느끼는데, 예수가 이제 사람들에게 구원과 구속과 새로운 탈출을 가져다주는 진정한 유월절 양이기 때문에 예수의 뼈도 부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탈출은 실제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아니지만 유형적 관계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예수가 지금 희생되고 있는 진정한 유월절 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조차도 유월절 양으로서 예수의 죽음의 중요성을 분명히 풀어서 지적합니다.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살펴본 본문이 이를 뒷받침하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이라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이것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옛 누룩을 제거하여 새 무교병이 되게 하라. 너희가 참으로 그러하듯이, 우리의 유월절 양인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희생이라는 언어에 주목하세요.

예수의 죽음은 사람들의 죄를 위한 희생으로 여겨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세와 그 후손들이 바치도록 지시받은 유월절 양을 성취하는 희생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또한 예수의 죽음이 고통받는 종의 죽음이라는 것을 이미 언급했다. 아마도 마가복음 10:45 예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려고 왔다는 것은 이사야 53장과 종의 노래, 이사야의 종의 언어를 반영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이 죄를 위한 희생이라는 다른 예들을 발견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본보기를 따라 사랑하는 자녀로서 사랑의 길을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으로 드리신 것같이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2절과 다른 곳에서 희생이라는 언어는 다시 한번 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를 더 많이 추가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서의 죽음은 아마도 구약의 희생 이미지를 다시 반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은 구약의 희생의 성취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지금 그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이 언어를 다시 주목하세요.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의 죽음이 백성의 죽음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조금 후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발견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이 구약의 희생 제도를 성취한 것에 대한 언급이 매우 많습니다.

구약 시스템이 제공해야 했던 수많은 희생과 이제 예수님이 직접 제공하신 단 한 번의 최후의 희생을 명확히 비교한 것은 궁극적으로 구약 시스템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성취합니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도 저자는 구약 시스템이 죄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체계는 궁극적으로 죄를 제거하고 예배자를 깨끗하게 하여 예배자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것을 성취할 최후의 희생을 기대하고 기대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며,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그것을 한다고 확신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또한 속죄일의 성취라고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 9장 11-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기 있는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을 때, 그는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즉 이 창조의 일부가 아닌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들어가지 아니하셨는데, 그것은 옛 언약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가 정결케 하는 제사가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피로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의식적으로 더럽혀진 사람들에게 뿌려진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소의 재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겉으로는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영으로 자신을 흠 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구약의 언어를 주의하십시오. 흠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동물, 흠 없는 제사, 하물며 그것은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죽음으로 이끄는 행위에서 우리의 의식을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5절과 26절에서, 그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자기의 피가 아닌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거뜬거뜬 자기 자신을 드리기 위해 하늘에 들어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날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의 피를 바르곤 했지만, 이제 저자는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대신, 26절에서,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세상 창조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제물로 바쳐 죄를 없애기 위해 시대의 절정에 한 번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읽고, 모든 희생적 언어, 모든 구약적 언어를 알아차리셨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이 속죄일의 궁극적 성취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히브리서에서 희생, 신권, 성전, 성막은 모두 함께합니다. 옛 언약은 모두 서로 얽혀 있어서 하나를 바꾸면 다른 모든 것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죄의 날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들의 죄를 위한 희생으로 자신을 바치십니다.

그래서 그 용서와 죄의 정화는 이제 그에게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구약성서는 더 위대한 누군가를 가리키기 때문에 임시적으로만 다루었고, 그것은 죄를 처리하고 속죄의 날에 의도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이전 강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 약속을 시작한다고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다른 본문들이 있지만, 저는 그것들이 예수님의 거뜬거뜬 죽음이 구약의 성취로 여겨진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반드시 특정 본문을 인용하거나 특정 본문을 지적하지 않고도 구약의 희생 제도를 성취한 것입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도 종종 구약 본문의 성취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죄를 단호하게 처리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의 성취에 불과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은 처리해야 할 죄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주목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창세기 3장을 전제로 합니다. 인류가 죄에 젖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은 인류가 죄의 영향을 받고, 죄의 권세 아래 있으며, 죄로부터 구출되어야 하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21에서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논의는 인간의 죄성, 인간의 반항,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의 인간의 소외라는 상황과 문제를 가정합니다. 즉, 인류는 죄의 권세, 죄의 영향과 효과 아래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구출되어 구원받고 구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제 그 수단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또는 첫 번째 모티브인 예수의 죽음은 구약 성경의 성취입니다. 살펴볼 두 번째 모티브는 대속물로 묘사되는 예수의 죽음입니다.

즉, 예수의 죽음은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 지불된 대가로 묘사됩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신약의 주제, 특히 구속과 관련하여 이야기할 때 이 주제를 다시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의 죽음이 사람들을 구속하거나 해방하거나 해방시키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대속물입니다. 즉,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 지불한 대가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인용했고 앞으로도 계속 인용할

본문에서 이 내용을 발견했는데,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는 말한다, 너희가 헛된 생활에서 구원을 받고 조상들에게로 내려온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티 없는 어린 양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 다시 구약성경의 언급을 주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흠 없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구속되거나 사들여진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구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요한 계시록에서 비슷한 언어를 나중에 발견합니다. 요한 계시록 1장 5절. 서두 인사에서, 5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는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요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이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말해서, 피는 죽음, 예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는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니 대속이나 구속, 우리를 해방시키는 언어를 다시 주목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지불된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또는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5장 9절에서도 같은 것을 봅니다. 찬송가 중 하나는 어린양이 이룬 것을 기념하여 불립니다. 그리고 다시 5장은 도살된 어린양,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이미지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이는 다시 한 번 유월절 어린양, 즉 백성의 죄를 위해 백성을 대신하여 도살되거나 도살된 희생양의 구약성경 이미지와 언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은 1장과 5절, 그리고 5장과 9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어린양이 부른 노래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당신은 두루마리를 가져가

봉인을 떼기에 합당합니다. 그 두루마리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심판과 구원을 가져다주시려는 계획을 상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지만, 그의 백성에게는 구원과 구속입니다. 당신은 그 두루마리를 가져가 봉인을 떼고, 즉 그 내용을 시행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죽임을 당했고, 당신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물로, 그의 백성을 구속하거나 사기 위해 지불된 대가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매수되거나 매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구원에 대한 논의의 맥락에서 이 구속의 개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요점은 신약이 이 은유를 아주 멀리까지 밀어붙이는 데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값을 누구에게 지불했는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하고 대속하고 사기 위해 지불되었는가?라고 묻기 시작하면, 신약성서는 말하지 않고, 아마 그것을 강요하고 묻는 것은 불필요하고 부적절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지불되었는가? 저는 그것이 별로 의미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값을 사탄에게 지불하여 그들을 사기 위해 지불되었는가? 그것은 분명히 부적절해 보이고, 신약성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께서 누구에게 값을 지불하셨는지, 누구에게 값이 지불되었는지 묻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구매 또는 몸값 지불의 은유이며, 이는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이상으로 밀어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인식해야 할 또 다른 것은, 제 생각에, 우리는 몸값과 구매라는 언어를, 아마도 출애굽의 맥락에서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약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또한 사람들을 해방하고 구속하기 위한 대속물 또는 지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매수되거나 구매되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예수의 죽음이 종말 환난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과 박해의 종말 환난이며, 예를 들어 다니엘서에서 특히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이제 종말 환난의 시작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겪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그 마지막 시대의 환난의 시작이자 시작점입니다. 그렉 비얼은 그의 신약 신학에서 이것을 자세히 주장했는데, 그는 복음서와 다른 곳에서 언급된 내용,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죽음이 다니엘서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마지막 시대의 박해, 마지막 시대의 시련과 마지막 시대의 환난의 시작이라고 지적합니다. 지금 당장 다니엘서로 돌아가서 구체적인 본문을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7장, 12장, 그리고 다른 몇몇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박해, 심지어 그들을 죽이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발견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실제로 그의 백성이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의 모델이나 패턴이 된다는 사실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고난과 죽음을 극복하셨듯이, 요한계시록에서 그의 백성은 그들의 고난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죽음으로 극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 즉 그들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고난과 죽음으로 시작되었고, 그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죽음의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말하기는 주저하지만, 그것이 발견되는 주요 주제 또는 주요 주제라고 말하기는 주저하지만, 그것은 확실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렉 비얼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수께서는

다니엘 7장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성도들을 사람의 아들로 대표하고 구체화하셨고, 십자가에서의 그의 죽음은 종말론적 원수가 충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들 중 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라는 다니엘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예수에게 일어났다고 Beal은 주장합니다. 예수 자신의 고난과 시련,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그의 죽음은 다니엘의 마지막 환난의 시작이자 성취이며, 원수, 악마적 유형의 인물, 억압적인 인물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죽일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일은 예수의 죽음과 관련하여 일어났고, 특히 복음서 전반에 걸쳐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유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다른 몇 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 전반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운명이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는 것으로 제시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특히 마태 복음에서 그랬지만, 이를 나타내는 다른 본문도 있습니다. 마태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과 매우 비슷하게 이집트로 내려가 이집트에서 구출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아담과 이브가 한 것과 매우 비슷하게,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 것과 똑같이 시험을 겪으셨다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는 40일 40박 동안 시험과 유혹의 기간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이스라엘과 대조적으로 예수께서는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체화하고 요약하거나 반복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유배를 떠맡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유배를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추방됨으로써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신한 궁극적인 추방입니다.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주요 본문을 찾았고, 다시 한 번 마태 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 복음

27장, 예수의 죽음에 대한 마태의 기록에서, 27장 46절은 실제로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잘 알려진 말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27장, 46절을 봅시다. 45절을 읽어 볼게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제거되어 이제 어둠이 있는 그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것은 심판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어둠이 이제 그 땅을 덮었습니다. 오후 3시경,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El oi, eloi , lama sabachthani , 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특히 지금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예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면전에서 배제되고 추방됨으로써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궁극적인 유배를 겪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주석가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읽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는 가장 신학적으로 흥미로운 본문 중 하나를 발견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예수는 이제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의 임재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아들로부터 멀어졌습니다 .

동시에, 예수는 여전히 신 그 자체입니다. 저는 그것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우리는 예수가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궁극적인 유배를 겪고 있으며, 이제는 신의 면전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의 죽음은 신약에서도 또 다른 중요한 주제로 여겨진다. 예수의 죽음은 악의 권세에 대한 승리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골로새서 2장 15절. 신학자들은 종종 이것을 예수의 죽음에 대한 Christus Victor 관점이라고 부른다. 즉, 예수의 죽음은 주로 악의 권세에 대한 승리였다.

그것은 정복하고, 정복하고, 악의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확실히 성경 전체에 걸쳐 그것에 대한 수많은 언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배적인 주제인지 아닌지, 또는 예수의 죽음과 관련된 주요 주제인지, 또는 예수의 죽음이 하는 주요한 일인지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예수의 죽음이 종종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와 패배로 여겨진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콜로새서 2장 15 절입니다. 뒤로 돌아가서 13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죄와 육체의 할레받지 않은 상태로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을 살리셨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정죄하는 우리의 법적 채무의 고발을 취소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습니다. 권세와 권세를 무장 해제하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악의 권세를 이긴 승리로 여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는 우리를 악의 권세에서 구해내십니다. 그는 우리를 악의 권세에서 구해내십니다.

그는 그들을 정복하고 패배시킵니다. 우리는 아마도 에베소서 2장에서 비슷한 언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1절에서 22절까지를 살펴보는 데 꽤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장의 처음 열 구절을 다시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언급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연합시킴으로써. 하지만 그가 그것을 말하기 전에, 이것은 유명한 본문입니다. 은혜 로 ,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구절과 연관시키는 바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이르기 전에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허물 과 죄로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행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을 때 그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당시에 그들 가운데 살면서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처음 세 구절에서 바울은 악의 권세와 권세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러한 그림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이 계속해서 암시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영역에서 일으키고 그분과 함께 씨를 뿌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맥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지만, 에베소서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확실히 언급이 있습니다. 이 두 본문과 다른 본문들은, 제 생각에, 그리고 아마도 요한 계시록에서도, 특히 12장과 13장에서, 사탄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이긴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요한 계시록 12장에서 사탄이 하늘에서 추방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12장에서 찬송가나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의 진술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고, 그게 뭐라고 쓰여 있느냐. 그때 나는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 음성이 이걸 해석할 거야.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쓰여 있잖아.

용은 사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9절에서 던져지고, 그는 땅으로 던져지고, 그의 천사들도 던져지고, 그런 다음 음성이 그것을 해석합니다.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을 고발하는 자를 위한 구원과 권능과 하나님의 왕국과 메시아의 권위가 왔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고소합니다. 그들은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를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사탄의 패배, 악의 권세의 패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혹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루는 것 중 하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악의 권세로부터 패배시키고, 극복하고, 구출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중요성과 그것이 무엇을 성취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그에 필요한 상관관계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려할 것입니다 .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Dr. Dave Mathewson입니다. 이것은 세션 22, 예수의 죽음, 1부입니다.